

■ 의료관광 소식

○ 조선대병원, 외국 학생·이주여성에 용품 전달 [2020. 05. 19.(화), 무등일보]



▲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은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후원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선대 외국인 재학생과 광주지역 이주여성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은 대학 국제협력팀, 광주 동·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각각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그간 병원은 국내 우수한 의료를 알리기 위해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를 대상으로 한 의료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많은 기관에서 조선대병원에 후원 손길을 전해왔고, 이러한 정성에 보답하고자 조선대 병원은 지역 내 외국인 건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은 광주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후원했다.

김신표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조선대병원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 외국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뜻깊다"며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정 기자 출처 : doit85@srb.co.kr

<http://m.honam.co.kr/detail/SexeuZ/603266>

○ 야간관광 직접 지출효과 3조 9000억원..4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2020. 05. 19.(화), 파이낸셜뉴스]



▲ 경남 사천 삼천포대교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뤄지는 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야간관광’ 사업과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야간관광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야간관광 지출액에 따른 관광객 직접지출효과는 3조 90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야간관광으로 인한 직접 지출에 따라, 관광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서 약 4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야간관광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은 승용차 11만 대 생산, 스마트폰 398만 개를 생산한 것과 유사한 파급효과를 지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야간관광 지출효과 및 파급효과는 국민여행조사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야간활동비율 및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관광변화에 따라 공사에서는 국민여행조사의 보완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야간, 조조시간의 관광 활용도를 높이고,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및 장기체류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야간관광 관련 110억 원 규모의 예산 수립했다. 또 관광지역 만들기(DMO) 중심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일본야경관광 컨벤션부로 조직을 통해 다양한 야간관광 활동을 육성 중이다.

중국도 야간관광 1인당 약 400~500위안(7만~8만원) 사용하며, 야간공연, 야경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중국 춘절기간 야간관광경험 92% 수준이며, 야간소비금액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은 도시수준에서 야간시간대의 경제, 문화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뉴욕 야간 문화 주도관리 독립 부서를 설립해 연간 29만9000여 개의 야간라이프 분야 고용을 창출했다.

연간 131억 달러의 야간라이프 분야 임금 지급 및 총 351억 달러 규모의 야간 라이프 경제 산출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7억 달러의 세금을 수입으로 얻고 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프로젝트 수’의 정란수 대표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야간관광 인지도 제고 및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공항접점 야간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 지역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여행주간 내 야간관광 테마 홍보,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포함 외래관광객 증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야간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향후, 야간관광의 구체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야간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한국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출처 : yccho@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005190807538247>

○ 광주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시동' [2020. 05. 18.(월), 노컷뉴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에 지역 내 특색있는 자연자산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지역 내 우수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시의회,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생태관광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월부터 광주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5개년) 수립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은 관련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지역 생태자원 및 관광여건 분석 ▲생태관광 비전 수립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방안 수립 등 생태관광 전반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계획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특색있는 생태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의 하나로 '광주 생태유람단' 프로그램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4회 운영한다.

상반기 대상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평촌마을, 무등산권, 황룡강 장록습지,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등 4곳으로, 생태·관광 전문가, 환경단체, 업무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생태자원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

지난 8일 시작된 생태유람단 프로그램은 오는 22일, 6월5일, 6월19일 등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 태스크포스 의견과 생태유람단 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은 "생태유람단 시범사업은 향후 생태관광 명소로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345520>

○ 청연한방병원 MRI 도입 ‘스마트병원’ 발돋움 [2020. 05. 14.(목), 남도일보]



▲ 지난 13일 오후 광주 서구 청연한방병원에서 청연한방병원과 광주미래의원의 ‘영상진단협진 및 공동연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모습

청연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장비를 갖추고 ‘스마트병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14일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은 최근 독일 지멘스사의 MRI 장비를 도입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새롭게 초빙, 진료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청연은 한방재활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의들이 정밀한 영상 자료를 토대로 협진을 시행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연한방병원에서는 MRI 장비를 활용해 의료진 간 정밀한 진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청연한방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병원인 광주미래의원(대표원장 강양준)과 영상 진단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미래의원은 대학병원급 3T MRI를 갖추고 정밀 영상검사, 최소침습 하이브리드 인터벤션치료, 맞춤형 하지정맥류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청연한방병원과 광주미래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상무지구 청연한방병원에서 ‘영상진단협진 및 공동연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연한방병원이 척추질환 및 중추신경계 MRI 영상진단자료를 인터넷망을 통해 광주미래의원에 전달하면 광주미래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진단자료를 판독해 소견을 청연에 통보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두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회의를 통해 진단 소견을 교환하는 등 IT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 협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암 및 내과질환 복부영상 진단의뢰/회송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광주미래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근치요법 관련 협진 또한 활발히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진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정기적인 의료진 영상진단 협진 가이드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진료실 환자맞춤형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 활용할 예정이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이번 MRI 장비 도입과 영상의학과 전문병원과의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영상판독 협진 진료는 물론 지역사회 보건 체계 발전에도 이바지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진 간 공유하고 보완해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 협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출처 : lec@namdonews.com

<http://m.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015>